

부인복 길원형 제도법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Drafting Method of the Basic Bodice Patterns for Women

배재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具美志

Dept. of Clothing & Textiles, Paichai Univ.

Assistant Prof. Miji Koo

〈목 차〉

I. 序 論

II. 부인복 길원형 제도법의 비교

1. 시대별 부인복 길원형 제도법

2. 부인복 길원형의 연대 및 집락별 치수비교

1) 부인복 길원형의 연대별 비교

2) 부인복 길원형의 집락별 비교

III. 結 論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omparative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drafting method of the basic patterns for women in Korea.

Followings were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1) The concept of the basic pattern could be found after the first of the 1950s and there was introduction of the many basic patterns. At first measurement couldn't be found. Gradually the personal body type could be expressed in the basic pattern through the practical measurements such as the width of highest bust level and the length of neck to bust.

2) Through the ages the changes of the basic patterns were between 1950,60s and 1980,90s distinctively at the back width, back shoulder angle, front and back shoulder height from biceps line, back neck ratio(height/width), BP position at the

biceps line, the amounts of underarm dart, underarm dart position from the biceps lines and front ease angle at BP line.

3) 4 Grouping the types of the basic pattern, followings are their characters; 1st Munwha or Doreme style, 2nd waist dart group, 3rd underarm dart and rectangular front ease, 4th the usage of many measurements like as front length, upper bust girth etc.

I. 序 論

의복원형이란 인간의 동적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체에 밀착되는 기본옷¹⁾으로서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만들기 위한 패턴제작의 기초가 된다. 착용자의 체형에 잘 맞으며 기능적이고 미적인 의복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체형 및 동작특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원형제도법이 우선되어야 한다.²⁾

개항이후 1900년 귀국한 여의사 박에스더,³⁾ 최초의 문학사인 하란사⁴⁾ 등의 유학생이나 외교사절, 1910년의 일본관광시찰단⁵⁾ 등이 착용한 옷이 소개되었다. 1877년 김규식의 부친 金鑣元이 일본에서 서양인으로부터 입수하여 국내에 소개한 최초의 재봉틀이 1920년대에 이르러 많이 보급되면서⁶⁾ 태화여자관, YMCA, YWCA, 경신학교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의복제작기술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고⁷⁾⁸⁾⁹⁾ 점차 신문, 잡지, 강습회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패턴과 양재법이 소개되었다.¹⁰⁾ 그 이전에는 여성복이라고 하지만 자켓이나 코트류는 남성복패턴을 사용하여 마음질하였다.⁹⁾ 그러나 1920년대의 남성양복의 재단기술도 옷본을 보관, 응용하여 주문자의 본을 뜨던 실정이었다.¹⁰⁾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개항이후에도 도입된 양장의 스타일¹¹⁾과 그 변천¹²⁾ 더 나아가 변화의 추이를 주기적인 측면¹³⁾에서 고찰하여 한국사회내에서 서양복식의 근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에 도입, 사용되어 온 다양한 종류의 부

인복 원형들의 제도법을 살펴보고 서양인의 체형에 맞는 제도법이 도입되었던 초기의 원형의 형태를 찾아 시기에 따른 제도법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또 이들은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변형되고 발전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길원형제도법 중 자료의 접근이 곤란한 1950년대 이전 부분은 조선일보 '가정'란을 1920년 1월1일자부터 1960년 12월31일자까지 조사하여 21점을 입수, 이 중에서 부인복 길원형과 관계된 4점을 고찰하고, 1955년부터 1993년까지는 여원지와 패턴책에 수록된 부인복 길원형 52종을 1992년도 표준치수¹⁴⁾를 사용하여 실제크기로 제작하여 원형의 형태를 표현하는 22개의 측정항목의 실제치수를 측정,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1: 길원형제도법의 시대에 따른 차이

연구문제2: 길원형제도법의 집락별 특성

II. 부인복 길원형 제도법의 비교

1. 시대별 부인복 길원형 제도법

서양복이 도입된 이후 1940년 이전에 제시된 패턴은 원형의 개념은 없이 디자인된 옷의 모양을 낼 수 있는 선들을 그려나가 옷본을 만들었다.¹⁵⁾ 6.25전쟁 이후에는 여성의 일상복으로 서양복이 급격히 수용되면서 다양한 원형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940년에 제시된 패턴¹⁵⁾을 살펴보면 원형의 제작

1) 192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공립양복학교를 졸업한 최초의 디자이너 李貞禧가 신설된 동덕여학교 양재과 주임교사로 부임하여 남녀양복과 어린이 양복을 만들어 내었다. 유희경(1972), 한국여성복식의 연구, 한국여성사Ⅱ, 이화여대출판부, p.275에서 재인용.

2) 1933년 이후 재봉틀메이커인 싱거협찬으로 양재재단강습회들이 열려 미국식의 패턴제작법이 한국의 일부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1933. 9. 26(3), 조선일보 1934. 6. 26(3).

3) 조선일보 1934. 2. 24 특간(1), 조선일보 1934. 3. 15 특간(1), 조선일보 1936. 2. 28(4).

과 유사하지만 이전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제시한 후 목둘레로부터 시작하여 연속적으로 그 위치에 있도록 하는 수치들을 제시하여 직접 디자인의 패턴을 그려내고 있다(부록참조 그림 1). 다트의 개념은 아직 소개되지 않았고 단지 옆솔기에서 허리를 줄이는 방법을 쓰고 있다. 전중식¹⁶⁾에서 사용하는 어깨경사를 결정하는 방법이 보이고 있으나 그밖의 제도법에는 이미 결정된 치수들을 사용하였다. 계측에 관한 언급이 있으나 패턴제작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전쟁직후에는 쏟아져 들어온 구호품들을 수선하여 한국인의 체격에 맞추어 입었다. 이 과정에서 서양복의 패턴과 제작법이 알려지게 되었다.¹⁷⁾ 이후의 패턴들은 명확히 원형의 개념을 갖고 디자인에 따라 변형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1950년대 중반이후에는 일본과 미국의 유학생들에 의해 일본의 문화식¹⁸⁾(그림 2), 도레메식¹⁹⁾(그림 3)과 미국의 FIT식²⁰⁾(그림 4), 프랑스식 원형²¹⁾(그림 5) 등 다양한 원형들이 소개되었고 그외에도 1970년대 중반 이후 영국식 원형²²⁾(그림 6)이 뒤늦게 소개되어 사용되었다.

일본의 원형들은 주로 가슴둘레를 등분한 치수를 사용하였다. 문화식은 옆선이 뒷길을 향해 사선이 되어 있고 앞치짐은 앞중심에만 분량을 넣어 옆선으로 갈수록 없어졌으며 다트는 없다. 도레메식은 어깨경사를 이등변삼각형과 직각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앞치짐은 문화식과 같으나 곡선으로 처리하였고 유폍을 사용하여 유두점을 결정하였다. 1958년 가봉과정을 줄이도록 한 절개법 제도²⁴⁾가 한국내에서 개발되어 사용되었는데(그림 7) 문화식과 도레메식 패턴법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이전부터 문화식과 도레메식 패턴이 국내에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여원에 제시된 패턴은 원형을 제시하지 않고 도레메식원형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디자인에 따라 패턴을 그려가고 있다.²⁵⁾

FIT식은 체형의 각 부위를 측정하여 원형제도에 사용하는데 특히 유폍과 유장을 사용하여 유두점을 결정하였고 어깨점은 shoulder slope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앞길은 허리다트, 뒷길은 허리다트와 옆솔기에서 허리를 줄여주었다. 영국식은 앞

뒷길 모두 어깨다트와 허리다트를 사용하였으며 허리의 줄임을 앞중심, 앞허리다트, 옆솔기, 뒷허리다트, 뒷중심에서 분할하여 몸에 밀착시켰다. 1958년에는 프랑스식 원형제도법²⁶⁾이 소개되었다(그림 5). 이것은 지금까지 소개된 원형과는 달리 앞에는 어깨다트와 2개의 허리다트를 갖고 뒤에도 허리다트를 갖으며 원형제작시 앞뒤의 기준선을 앞길이나 등길로 따로 사용하였다.

1960년대에 제시된 부인복원형 중 신장을 기준으로 한 등분을 사용한 원형이 소개되고 있는데²⁷⁾ 이것은 중요치수를 신장의 등분으로 계산하여 사용하고 가슴둘레의 1/2을 사용한 기준자로 모든 수치를 표현하였다(그림 8). 그중 1961년에 여원에 제시된 원형²⁸⁾은 계측항목으로 가슴, 허리, 엉덩이둘레 외에도 등길이, 앞길이, 뒷품, 앞품, 가슴둘레 등이 있으나 실제로 제도할 때는 기준선 설정이외에는 가슴둘레만 사용하여 제도되었고(그림 9), 어깨가 처지거나 높은 경우와 가슴이 처진 경우에 대한 보정 등 체형에 따른 패턴의 보정이 언급되었다. 또 앞뒷길 모두 허리와 옆솔기에 다트를 두고 그 분량도 많이 넣은 원형²⁹⁾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허리를 가늘게 하고 꼭 맞게 하여 그 당시의 실루엣을 보다 잘 나타내려는 시도에 따른 변화가 원형에서도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그림 10). 가슴부위의 차이를 원형에 반영시킬 수 있는 패턴제작법이 제시되었는데 초기에는 유장, 유폍으로 유두점을 결정하였다(그림 11).³⁰⁾

그리고 1960년대 중반 독일재단사의 한국방문때 이성우에게 기증된 책을 통하여 밀러부자식제도법(그림 12)이 한국에 소개되었다.³¹⁾ 이것은 체형에 따라 폭, 길이, 나비의 변화추이를 찾아 원형에서 늘림과 줄임을 하여 체형에 맞추었다.³²⁾

1970년대에는 이에 더하여 윗가슴둘레와 유두위 가슴둘레를 사용하여 앞뒷길에 가슴둘레를 다르게 적용시켰는데²⁹⁾(그림 13) 이 방법은 특히 양재학원의 원형들³⁰⁾³¹⁾(그림 14)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즈음 원형과 체형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가면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원형개발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따라서 외국에서 도입된 원형을 기본으로 하여 적용치수를 한국인의 치

수로 보정한 원형들이 개발되었다. 1968년 임원자³⁴⁾에 의하면 중고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원형과 체형을 조사한바 그 당시 일본 문화식이 98.1%가 사용되고 있었고 문화식 원형은 어깨넓이, 목둘레, 진동둘레, 품 등에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보정원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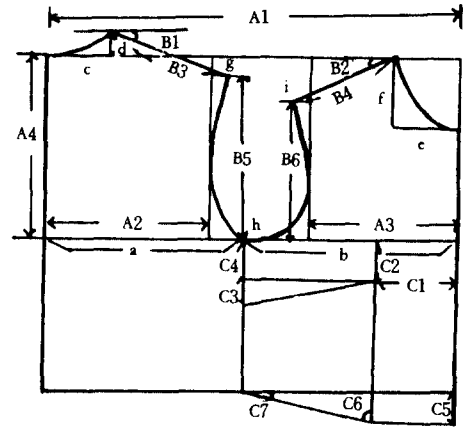
2. 부인복 길원형의 연대 및 집락별 치수비교

실제 입수가 가능했던 1955년 이후 1993년까지의 여원지와 패턴책에 수록된 길원형 52종을 1992년 기준 치수¹⁴⁾로 제도한 후 원형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들의 길이와 각도등의 수치들을 직접 측정하여 통계에 사용하였다. 이 항목들은 기준선 항목(A1-A5), 겨드랑선 상부항목(B1-B9), 겨드랑선 하부항목(C1-C7), 기타 계측항목(M)으로 이루어졌다.

측정항목에 관한 사항은 <표 1> 및 (그림 15)와 같다.

1) 부인복 길원형의 연대별 비교

1955년부터 1993년까지 원형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느 부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기 위하여 연대를 1950, 60년대, 1970년대, 1980, 90년대의 3집단으로 나눈후 분산분석을 행하였다. 먼저 Cochran의 C



$$A5 = b - a \quad B7 = c/d \quad B8 = e/f \quad B9 = g - h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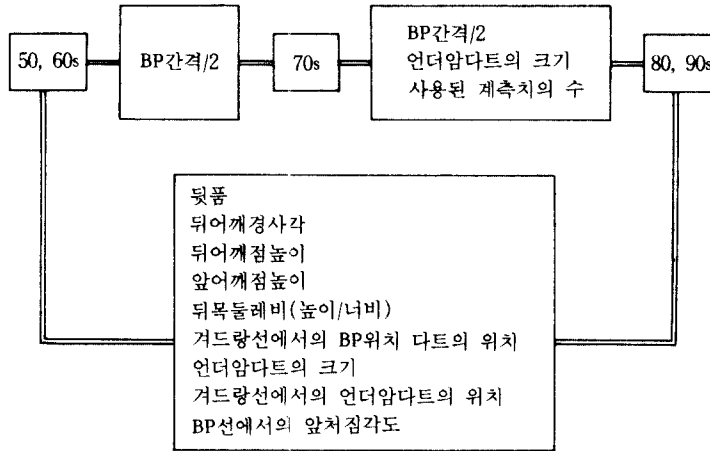
그림 15. 원형에서의 측정항목

를 구하여 등분산성의 유의도를 검증한 후 Multiple Range Test로써 0.05%의 유의수준에서 Duncan Test를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표 3> 참조).

50,60년대와 70년대의 차이는 BP간격/2에서만 나타났다. 즉 70년대의 BP간격의 평균이 1.2cm가량 커졌는데 이것은 60년대 많이 사용된 문화식원형이 앞품의 1/2로 BP의 위치를 잡은데 비하여 70년대에 사용된 원형들은 유목의 실제계측치를 많이 사용하는

<표 1> 측정항목

A1. 기준선의 전체폭	B4. 앞어깨길이	C3. 언더암다트의 크기
A2. 뒷품	B5. 뒤어깨점높이	C4. 겨드랑선에서의 언더암 다트의 위치
A3. 앞품	B6. 앞어깨점높이	C5. 앞처짐크기
A4. 진동깊이	B7. 뒤목둘레비(높이/너비)	C6. BP선에서의 앞처짐각도
A5. 앞뒤길폭의 차	B8. 앞목둘레비(높이/너비)	C7. 옆선에서의 앞처짐각도
B1. 뒤어깨경사각	B9. 진동둘레	M. 사용된 계측치의 수
B2. 앞어깨경사각	C1. BP간격/2	
B3. 뒤어깨길이	C2. 겨드랑선에서의 BP위치	



〈표 2〉 부인복 길원형의 연대별 항목비교

것과 관계된다.

70년대와 80,90년대의 차이는 BP간격/2, 언더암다트의 크기, 사용된 계측치의 수에서 보였다. BP간격의 경우 후자의 평균이 더 적어지는 것은 70년대에 비하여 앞품의 1/2치수를 사용하는 원형에서 변형, 발전된 유사한 원형들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처짐이 있는 원형이 많기 때문에 언더암다트의 평균크기도 상대적으로 큰 증가를 보이게 되었다. 계측치의 사용범위는 각 연대 모두 2에서 8내지 9의 다양한 사용이 있었다. 최근의 사용항목이 많아진 것은 뒷가슴둘레, 유장, 유폭 등 가슴과 관계된 항목, 등길이와 앞길이, 뒷품과 앞품을 앞뒷길에 각각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50,60년대와 80,90년대의 차이는 뒷품선의 설정, 뒤어깨경사각, 앞뒤어깨점높이, 뒤목둘레비(높이/너비), 겨드랑선에서의 BP위치, 언더암다트의 크기, 겨드랑선에서의 언더암다트의 위치, BP선에서의 앞처짐각도에서 나타났다. 뒷길은 어깨경사각이 감소하면서 어깨점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앞길은 어깨경사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는 않으나 어깨점높이를 낮춘 원형이 많았다. 뒤목둘레선의 높이와 너비의 비는 점차 커지는데 이것은 목의 높이를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앞목둘레비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목의 깊이를 약간 작게 두었다. 뒷목높이

가 더 높아지는 것은 길이로 긴 타원형의 목둘레를 가져 앞으로 숙여진 목둘레에 맞는 원형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언더암다트의 크기는 50,60년대에는 70년대 이후에 비해 현저히 작은 치수를 보이는데 이는 앞처짐이 사용되지 않은 원형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처짐의 형태는 50,60년대에는 BP선에서의 앞처짐각도와 옆선에서의 앞처짐각도가 가장 작아 문화식을 많이 사용한 것이 보이고 90년대로 올수록 직사각형의 앞처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초기에는 일본의 문화식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점차 한국인의 체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에 많이 나타난 직사각형의 앞처짐을 사용한 것과 관계한다.

이상에서 원형제도와 그 특징은 이웃한 시대끼리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초기의 원형들과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원형을 비교할 때 어깨선의 경사, 목둘레, 언더암다트와 앞처짐의 크기와 형태에서 변화를 의식할 수 있었다.

2) 부인복 길원형의 집락별 비교

1955년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원형들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들을 각 변수의 특성에 근거하여 범주화하기 위하여 집락분석을 사용하여 원형의 유형을 나누어 보았다. 이들은 원형의 형태와 관계된 22개의 변

〈표 3〉 연대별 차이에 관한 F Ratio와 Duncan test결과

변 수 명	집단별 평균			F Ratio	Duncan test(.05)
	5,60	70s	8,90s		
A1. 기준선의 전체폭	45.23	45.11	45.46	.9180	
A2. 뒷폭	17.42	17.97	18.37	6.0158*	<u>5,60s</u> <u>70s</u> <u>8,90s</u>
A3. 앞폭	16.36	16.40	16.36	.0046	
A4. 진동깊이	20.55	20.52	20.75	.8735	
A5. 앞뒤길폭의 차	1.77	1.35	1.17	1.5449	
B1. 뒤어깨경사각	20.68	20.98	17.74	2.9675	<u>5,60s</u> <u>70s</u> <u>8,90s</u>
B2. 앞어깨경사각	19.20	21.17	20.37	.9137	
B3. 뒤어깨길이	13.66	13.24	13.71	1.2397	
B4. 앞어깨길이	13.51	12.64	13.32	1.4930	
B5. 뒤어깨점높이	17.27	17.66	18.32	4.1390*	<u>5,60s</u> <u>70s</u> <u>8,90s</u>
B6. 앞어깨점높이	16.20	15.64	15.50	2.3873	
B7. 뒤목둘레비(높이/너비)	.27	.31	.33	3.8197*	<u>5,60s</u> <u>70s</u> <u>8,90s</u>
B8. 앞목둘레비(높이/너비)	1.08	1.06	1.06	.2209	
B9. 진동둘레	41.11	39.75	40.55	1.3114	
C1. BP간격/2	8.88	9.66	8.81	3.8924*	<u>5,60s</u> <u>8,90s</u> <u>70s</u>
C2. 겨드랑선에서의 BP위치	2.63	4.08	3.55	4.8763*	<u>5,60s</u> <u>70s</u> <u>8,90s</u>
C3. 언더암다트의 크기	0.73	1.24	2.25	6.8369**	<u>5,60s</u> <u>70s</u> <u>8,90s</u>
C4. 언더암다트의 위치	1.00	3.33	2.94	4.9035*	<u>5,60s</u> <u>70s</u> <u>8,90s</u>
C5. 앞처짐의 크기	2.70	2.98	2.84	.3862	
C6. BP선에서의 앞처짐각도	53.39	68.74	79.60	6.8274**	<u>5,60s</u> <u>70s</u> <u>8,90s</u>
C7. 옆선에서의 앞처짐각도	35.78	51.70	60.05	3.0850	
M. 사용된 계측치의 수	4.45	3.70	5.86	2.9251	<u>70s</u> <u>5,60s</u> <u>8,90s</u>

* p<0.05 ** p<0.01.

수들의 수치를 표준점수로 계산하여 구해졌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4집락으로 구분되었다(〈표 4〉, 〈표 5〉, 〈부록표 6〉 참조).

제1집락은 전체의 40.4%로 문화식과 도레메식 제도법을 사용하여 앞처짐이 BP선까지는 겨드랑선에 평행이나 옆선으로 향하면서 앞처짐분이 사라져 옆선에서는 예각을 갖는 형태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앞뒷길에 다트를 갖지 않았고 한 개의 원형에만 뒷길에 허리다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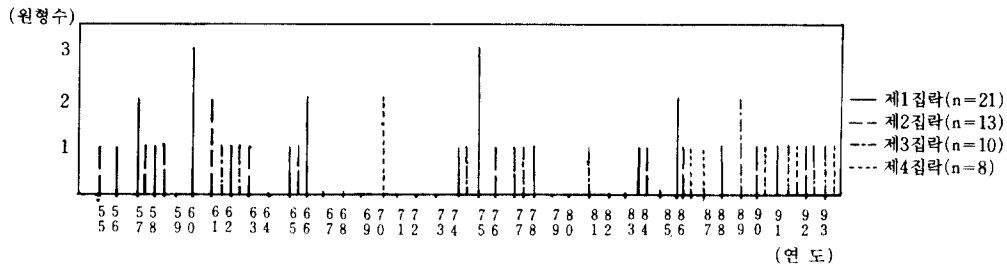
제2집락은 전체의 25.0%이고 앞처짐이 없고 다트

량이 많은 허리다트가거나 앞뒷길 모두에 허리다트를 가지며 옆선에서만 허리출임이 평균 7.56cm(범위 6.6-8.5)였다. 이 집락의 원형들은 1955-65, 1976-77, 1984년 이후에 걸쳐 주기적으로 사용되었다.

제3집락은 앞처짐의 형태가 직사각형이고 허리다트를 쓰지 않고 언더암다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체의 19.2%였다.

제4집락은 원형제도에서 앞길이와 등길이를 함께 사용하여 그 차이치수(등길이-앞길이)로 직사각형의 앞처짐이 되도록 한 원형들로서 전체의 15.4%를 차

〈표 4〉 집락의 연대별 특징



〈표 5〉 집락별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명	집락		제1집락 n=21(40.4%)		제2집락 n=13(25.0%)		제3집락 n=10(19.2%)		제4집락 n=8(15.4%)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1. 기준선의 전체폭	45.82	.48	44.82	.87	45.01	.08	45.12	.83		
A2. 뒷폼	17.67	.69	18.25	.91	17.64	1.58	18.46	.18		
A3. 앞폼	16.62	.97	16.31	1.09	16.51	1.31	15.81	.18		
A4. 진동깊이	20.75	.58	20.66	.87	20.50	.05	20.39	.15		
A5. 앞뒤길폭의 차	1.65	1.15	1.75	1.35	1.11	.72	.74	.66		
B1. 뒤어깨경사각	21.00	2.78	19.67	5.04	19.86	5.58	14.80	4.31		
B2. 앞어깨경사각	19.63	4.74	19.57	3.21	19.86	3.38	22.33	3.59		
B3. 뒤어깨길이	13.80	.80	14.17	1.34	12.91	1.95	13.74	.63		
B4. 앞어깨길이	13.16	.99	13.72	1.54	12.38	1.57	13.90	.93		
B5. 뒤어깨점높이	17.33	1.24	17.34	1.25	18.44	.73	18.94	.91		
B6. 앞어깨점높이	16.26	1.03	15.27	.98	16.24	.66	14.88	.99		
B7. 뒤목둘레비(높이/너비)	.30	.05	.27	.07	.31	.04	.37	.08		
B8. 앞목둘레비(높이/너비)	1.10	.06	1.06	.07	1.06	.11	1.03	.06		
B9. 진동둘레	40.87	2.06	39.25	2.20	40.92	2.29	41.78	1.62		
C1. BP간격/2	8.29	1.93	8.64	.34	7.78	2.87	8.50	.00		
C2. 거드랑선에서 BP위치	2.10	1.94	3.18	1.50	2.49	.93	3.03	.29		
C3. 언더암다트의 크기	.00	.00	.46	1.13	2.95	1.05	1.34	.71		
C4. 언더암다트의 위치	.00	.00	.58	1.51	3.09	1.37	3.91	1.60		
C5. 앞처짐의 크기	2.88	.68	.49	1.07	3.29	.20	1.34	.71		
C6. BP선에서의 앞처짐각도	81.25	3.90	13.85	33.80	90.00	.00	90.00	.00		
C7. 옆선에서의 앞처짐각도	36.23	.23	13.31	32.52	90.00	.00	90.00	.00		
M. 사용된 계측치의 수	3.24	2.28	6.46	2.47	4.00	.94	7.88	2.03		

지하였다. 이들은 제도에 사용한 계측치가 많았고 ($M=7.88$) 앞어깨경사각이 다른 집락에 비해 컸으며 ($M=22.33$) 1986년 이후 사용된 원형에서 주로 나타났다.

Ⅲ. 결 론

최초의 서양복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대중에게 소개되었던 다양한 종류의 부인복 길원형을 비교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40년대 이전의 일간지에 게재된 패턴들은 아직 원형의 개념은 나타나지 않고 옷의 디자인에 유사한 선을 그려나가 옷본을 완성하였다.

둘째 1950년대 이후 다양한 원형의 도입과 소개가 있었다.

세째 시대에 따른 원형의 변화는 이웃한 연대에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은 반면 초기의 원형과 최근의 원형은 뒷품, 뒤어깨경사각, 앞뒤어깨점높이, 뒤목둘레비(높이/너비), 거드랑선에서의 BP위치, 언더암다트의 크기, 거드랑선에서의 언더암다트의 위치, BP선에서의 앞처짐각도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뒤어깨는 최근의 원형에서는 경사가 적어져 결과적으로 어깨점이 높고, 앞어깨는 경사가 커져 어깨점이 낮게 설정되었다. 또한 뒤목둘레선은 점차 높이가 그려지는 반면 앞목둘레는 깊이가 거의 변화없이 앞으로 수그러진 목형태에 적합한 원형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시대에 따라 체형과 유행에 의해 원형이 변화감을 시사한다.

네째 이들 원형은 4집락으로 구분되었다. 제1집락은 문화식과 도레메식 원형과 유사하게 제도하는 원형, 제2집락은 허리다트와 옆선에서 허리를 많이 줄인 원형, 제3집락은 언더암다트와 직사각형 앞처짐을 갖는 원형, 제4집락은 다양한 계측치수를 사용하고 등길이와 앞길이의 차이치수로 직사각형의 앞처짐을 갖는 원형들로 나뉘었다.

【참고문헌】

- 1) 임원자(1992), 의복구성학, 교문사, p.18.
- 2) 임원자, 최해주(1988), 표준의복원형설계법에 관한 연구(I), 한국의류학회지, 12(1), p.93.
- 3) 이효재(1980), 여성의 사회의식, 평민사, pp. 145-147.
- 4) 민숙현, 박해경(1990), 한가람 불가람에: 이화100년야사, 지인사, p.501.
- 5) 조선일보 1972. 3. 14(4).
- 6) 조선일보 1972. 4. 2(4).
- 7) 조선일보 1986. 5. 23(6).
- 8) 최경자(1981), 패션50년, 의상사 출판국, p.50.
- 9) 조선일보 1938. 11. 9(4).
- 10) 김진식(1990), 한국양복100년사, 미리내, p.108.
- 11) 남윤숙(1991), 한국여성양장의 효시에 관한 연구, 복식, 제16호.
- 12) 유수경(1989), 한국여성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13) 임원자 외 5인(1993), 한국복식변천과 사회변천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2), pp. 315-327.
- 14) 공업진흥청(1992),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 15) 조선일보 1940. 7. 5(4).
- 16) 김영옥, 박은희(1974), 양재교실, 수학사, p.202.
- 17) 김진식(1990), 앞글, p.156-158.
- 18) 일본문화여자대학, 문화복장학원 편(1986), 서양피복구성학1, 유신문화사, p.58.
- 19) 편집부 편(1986), 도레메식 양재교본, 유신문화사, p.7.
- 20) Curtis, Irving(1964), Fundamental Principles of Pattern Making, New York:FIT, p.16-18.
- 21) 여원 1958. 8월, pp.224-228.
- 22) Bray, Natalie(1974), Dress Pattern Designing, London:Granada, p.21.
- 23) 여원 1957. 4월 pp.233-235.
- 24) 김필중(1986), 절개식재단법, 유신문화사, pp. 9-12.
- 25) 최경자, 양재교본, 의상사 출판국, pp.1-10.
- 26) 여원 1961. 10월, pp.314-319.
- 27) 여원 1961. 8월, p.292.
- 28) 여원 1960. 5월, p.290.

- 29) 의상 1970. 8월, pp.192-193.
- 30) 시대(1970), 여성의상I, pp.72-73.
- 31) 김창준(1980), 양재교본, 라사라, p.54.
- 32) 김진식(1990), 앞글, p.251.
- 33) Müller & Sohn(1978), 윌러부자시스템: 체형에 따른 증감법, 현대문화사, pp.8-15.
- 34) 임원자(1968),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체형과 Basic Pattern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 6, pp.38-52.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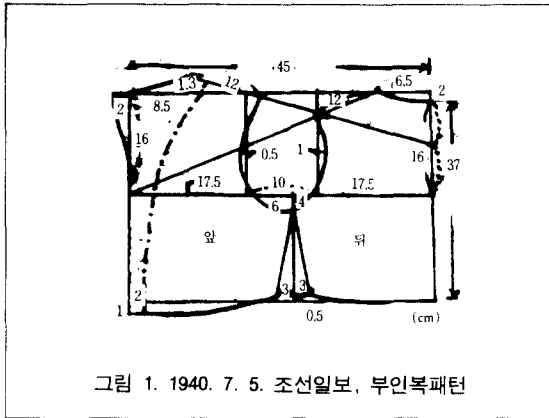


그림 1. 1940. 7. 5. 조선일보, 부인복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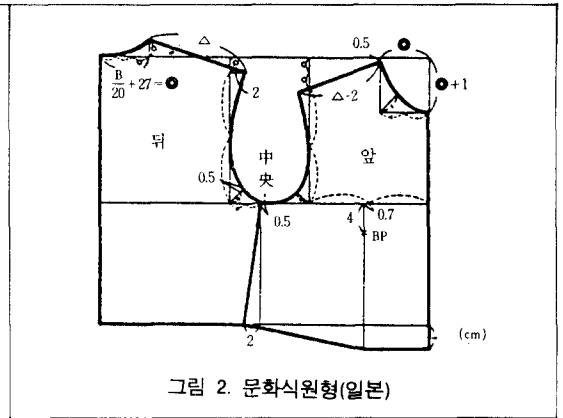


그림 2. 문화식원형(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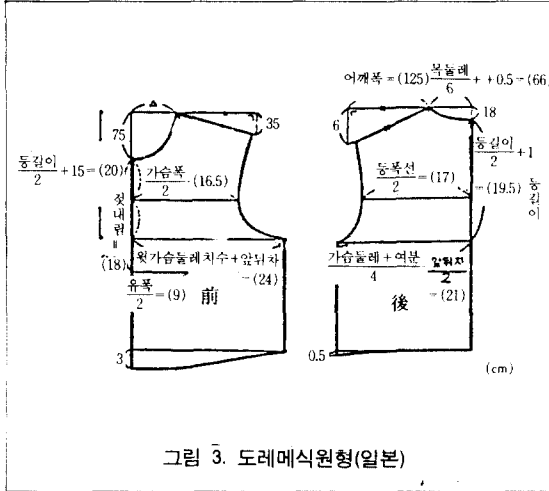


그림 3. 도레메식원형(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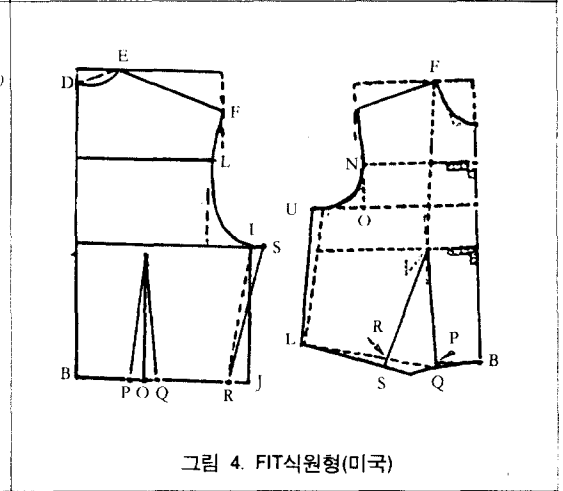


그림 4. FIT식원형(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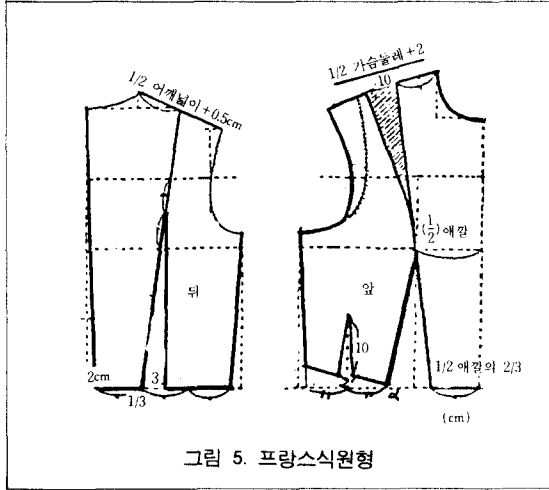


그림 5. 프랑스식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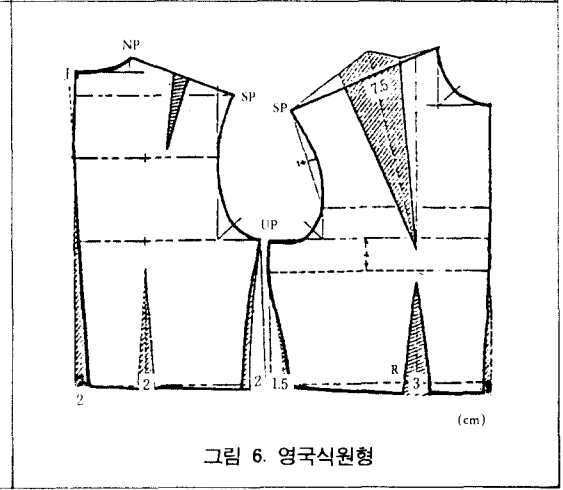


그림 6. 영국식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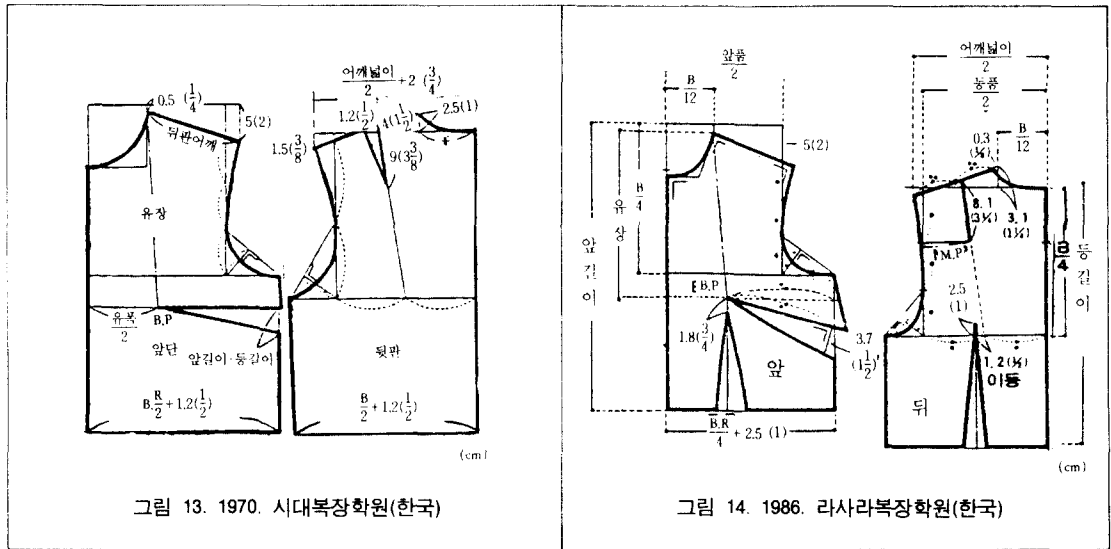


그림 13. 1970. 시대복장학원(한국)

그림 14. 1986. 라사라복장학원(한국)

〈표 6〉 집락별 원형목록

집락	내용
제1집락 (n=21)	여원(1956. 3), 여원(1957), 여원(1957, 염지원), 여원(1958), 여원(1960. 5, 김영애), 여원(1960. 6, 김영애), 여원(1960. 10, 김신명), 양재(1962, 김영옥), 여원(1965. 3, 김화순), 여원(1966. 10, 별책), 여원(1966. 11, 별책, 염지원), 양재교실(1974, 김영옥, 박옥희), 양재실기(1975, 권계순), 양재(1975, 김난봉, 김영옥), 양재교본(1975, 유신), 기초패턴제도법(1978, 조효순), 실용양재II(1984), 도레메식 양재교본(1986), 문화식 서양피복구성학I(1986), 의복의 입체구성(1988, 강순희), 피복구성학(1991, 박혜숙역).
제2집락 (n=13)	여원(1955. 2, 박순기), 여원(1957. 7, 별책, 김복환), 여원(1958. 8), 여원(1961. 8, 오예중), 여원(1961. 8, 김필중), 여원(1963. 6, 방순옥), 여원(1965. 6, 방순옥), 패턴디자인 및 제작법(1976, 도재은), 절개식재단법(1977, 김필중), 패턴디자인 및 제작법(1984), 절개식재단법(1986), 의복구성의 기초와 응용(1990, 원영옥), 의류학개론(1992, 이선재)
제3집락 (n=10)	여원(1961. 10, 최금린), 여원(1962. 4, 최경자), 양재교본(1974, 의상사), 최신재단교본(1977), 의복구성학(1981, 임원사), 의류학개론(1989, 이정옥, 김태훈), 피복구성학(1989, 정운자), 서양의복구성(1991, 박혜숙, 이명희), 의복구성학(1992), 패턴의 원리(1993, 국제패션문화사)
제4집락 (n=8)	의상(1970), 여성의상I(1970, 시대), 최신양재교본: 절충식(1986), 프로패턴과 보정(1986, 라사라), 봉제기술실무전서(1987, 이주영), 평면재단I(1990, 라사라), 의복디자인과 패턴구성(1991, 김효숙), 프로패턴과 보정(1993, 라사라)

* 제2집락의 패턴디자인 및 제작법(1976, 1984), 절개식재단법(1977, 1986)과 제3집락의 의복구성학(1981, 1992)는 원형의 형태는 같으나 제도항목들의 수치가 변화된것임.